

페터 한트케의 발칸 토포그래피*

- 『도나우, 사바, 모라바, 드리나 강으로의 겨울여행 또는 세르비아에게 정의를』에 나타난 정치적 지형도와 공간시학을 중심으로

탁 선 미 (한양대)

국문요약

1996년 발표된 페터 한트케의 세르비아 여행기는 그의 제 2기 발칸문학의 정점이자 소위 한트케 논쟁을 점화시킨 핵심 텍스트였다. 문학적 퇴행으로까지 폄하되며, 작가의 문학 전체에 대한 호불호마저 갈라놓은 그의 발칸 텍스트들은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구 유고지역을 역습한 민족갈등과 전쟁에 대한 독보적인 문학적 반응이었다. 유고 슬라비아를 남슬라브 민족들의 저항의 역사공동체와 그 정신이 실현된 이상적 공간으로 생각했던 한트케는 발칸 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을 서유럽을 지향하는 차별적 ‘발칸’ 정치학으로 비판하였다. 적과 우리 편을 나누는 이분법의 틀로 유고 전쟁을 재단하고 세르비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서구 주류 언론에 맞서 한트케는 언어예술가로서 유고의 또 다른 현실을 발견하고자 했다. 하지만 역사적 아우라 속에서 이상화된 유고슬라비아를 옹호하려는 그의 발언과 행보는 전쟁의 현실정치에서는 규범의 위반이자 스캔들이었다. 다른 한편 세르비아 여행기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주관적 체험의 기록으로, 발칸은 소박한 인간들의 기억과 희망 속에서 배타적 영토경계에 맞서는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유고 전쟁 후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잔존하는 민족갈등과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학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한트케의 발칸 토포그래피에 나타난 탈민족주의적인 역사적 지정학적 논리를 탐색하고 동시에 그것을 현재의 체험으로 변용시키는 신화적 공간시학의 구조를 밝힐 것이다.

주제어: 페터 한트케, 유고 해체전쟁, 발칸, 세르비아, 드리나 강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초 유럽에서는 세계정치질서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대변동이 시작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353).

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그에 힘입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개혁 움직임은 결국 독일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 그리고 바르샤바 군사동맹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낳은 국제질서의 종식이자, 국가주도형 유럽 사회주의 체제실험에 대한 최종적인 실패 선고이며, 서유럽 정치경제 규범이 구 사회주의 동구권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초기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1990년대의 이 거대한 체제변화는 유럽의 역사적 시계가 뒤로 되돌아간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구동구권 유럽 곳곳에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민족분쟁과 종교갈등이 부활하였고, 소수민족의 학살과 추방을 동반하는 영토전쟁이 벌어졌으며, 사회주의 시기에 자리 잡은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은 끈질긴 힘으로 동유럽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권위주의 국가 체제로 복귀한 러시아의 패권적 국제정치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장기적 내전 상태로 빠져드는데 기여하였다. 21세기를 앞두고 동유럽 곳곳에서 목도되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퇴행현상은 서유럽인들에게 유럽문명의 규범과 유럽적 자기이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지역과 국경을 공유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게 동유럽의 새로운 갈등과 분쟁은 큰 충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후 나토의 우산 아래 평화주의 외교를 고수해온 독일이 자국의 지정학적 정체성과 국제정치적 역할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하였다. 놀랍게도 녹색당과 하버마스과 같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지지 아래 독일이 유엔의 안보리 결의 없이 나토군의 일원으로 1999년 코소보 전쟁에 참전한 것은 동유럽의 갈등과 분쟁이 독일사회의 자기이해의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해 준다.)

그렇다면 독일어권 문학은 1990년대 동유럽의 지정학적 대변동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독일문학계의 반응은 우선 비셰그라드 국가 지역²⁾과 연관이 있다. 바르샤바 군사동맹에서 벗어난 이 지역의 문서보관소와 역사적 현장에 서방의 언론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독일 작가들에 의해 이차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전후 독일인 추방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의 공간으로 다시 발견되었다.³⁾ 중동부 유럽 곳곳에 깃든 인권

1) 코소보 무력개입을 통해 나토는 기존의 ‘방위적 전략 개념’을 ‘공격적 전략 개념’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2)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을 일컫는다.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동유럽, 그리고 발칸의 남동유럽과 구분하는 이 국가들은 가톨릭교회가 지배적이며, 1990년대 대전환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갖춰 나갔다는 특징이 있다.

침해와 인종주의, 추방과 숙청, 학살과 파괴의 생생한 역사적 자취에 직면하면서, 홀로코스트는 1세대를 넘어 2, 3세대 독일인들의 집단적 자기이해에도 준거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Assmann 2006, 98) 그 범죄에 부역했던 유럽 모든 사회에도 역사적 윤리적 자기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

발칸반도 남동부 유럽에 대한 문화적 반향은 이와는 조금 달랐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독일비평계에서는 구 동독문학의 대가들을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재평가 논쟁이 지배하고 있었고, 멀리 발칸의 전쟁은 문학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발칸유럽의 지정학적 혼란과 변화가 독일어권 문학에 미친 커다란 영향은 오히려 이 지역에서 독일어권으로 이주 또는 망명한 신세대가 새로운 문화적 유형의 작가 그룹으로 등장한 21세기 들어서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했다.⁴⁾ 이런 맥락에서 보면, 페터 한트케의 발칸 텍스트들은 기존 독일작가로서 유고 해체전쟁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유일하고 독보적인 문학적 자신임이 드러난다.⁵⁾ 한트케는 전쟁이 시작된 1991년 『동화나라로부터 몽상가의 이별』을 출판한 이후 거의 20여 년이나 유고 해체전쟁 문제를 에세이, 여행기, 소설,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주제화 하였다.

유고 전쟁은 냉전의 이념이 퇴색한 상황에서 발발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내전인지 국가 간 전쟁인지 불확실한 면이 있었다. 한트케의 발칸 텍스트들은 이처럼 불확실해진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아래 감행된 문학적 정치참여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적잖은 도덕적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필자는 1990년대 소위 한트케 논쟁이 문제의 본질인 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대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유고 전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나 냉전 시기 국지전과 달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규정해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3) 제발트, 우베 팀, 올리히 트라이헬, 쿤터 그라스는 1989/90 전환 이후 대두한 독일지역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4) 예를 들면 1978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출생하고 보스니아 내전 발발과 함께 독일로 피난 온 사샤 스타니스치 Saša Stanišić는 2000년대 들어 보스니아 내전과 다문화 이주 작가로서의 체험을 반영한 작품들, 『우리의 지하실 놀이 Was wir im Keller spielen』(2005)와 『병사가 축음기를 고치는 법 Wie der Soldat das Grammofon repariert』(2006)을 발표해 독일문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 발칸 동부지역까지 확장해보면 루마니아에서 1979년 태어나 부카레스크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이후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일어로 글을 쓰는 다나 그리고르시아 Dana Grigorcea, 이미 1980년대 독일어권으로 망명해온 헤르타 뮐러와 카탈린 도리안 플로레스쿠 Catalin Dorian Florescu도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독일어권 문학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5) 올리 체 Juli Zeh의 여행일기 『고요에는 소리가 있다. 보스니아 여행기 Die Stille ist ein Geräusch. Eine Fahrt durch Bosnien』(2002)가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경우이다.

동반된 전쟁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한트케 논쟁의 가치는 한 모더니스트의 윤리적 오류를 확인하는 데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 논쟁의 배경, 즉 새로운 국제정치의 질서를 둘러싼 투쟁이 가시화 된 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유고 해체전쟁 후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민족갈등과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학이 잔존하며 유럽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선 한트케의 발칸 텍스트의 배경을 이루는 지정학적 논쟁에 포함된 다양한 민족주의 내러티브들, 그리고 한트케의 탈민족주의적인 역사적 지정학적 내러티브를 보다 차분하게 탐색하고 평가하고자 한다(II장). 그 다음에 한트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세르비아 여행기가 전쟁저널리즘에 대한 언어비평이며 동시에 민족국가의 배타적 영토정치학을 넘어서는 탈민족주의적 신화적 공간의 시학을 구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III장).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트케 발칸문학의 정치성과 비정치성에 대해 짚막하게 성찰하면서 논문을 맺고자 한다.

II. 유고 해체전쟁과 발칸의 정치학

1. 유고 연방과 민족주의 문제

유고 해체전쟁은 1991년 열흘간의 슬로베니아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1991-1995년 크로아티아 전쟁, 1992-1995년 보스니아 전쟁, 1992-1994년 크로아티아-보스니아 전쟁, 1999년 코소보 전쟁, 2001년 마케도니아 폭동으로 이어진 일련의 전쟁을 일컫는다. 이 전쟁들은 비록 그 장소와 주체들이 달랐지만 갈등 형성의 방식과 무력분쟁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크게 보면 무력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민족 간 갈등은 첫째, 연방 내 공화국에서 유고공산당 중앙정부에 대해 개혁과 분리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정당이 등장하고, 둘째, 이것이 해당 공화국내 세르비아인들의 불만과 저항을 야기하고, 셋째, 이러한 개별 공화국 내 민족분쟁에 베오그라드의 연방정부와 유고인민군이 개입하는 식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서 쟁점은 유고 연방의 무력개입이 공화국의 분리주의 정치세력에 대해 국가의 통합성과 주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정치적 노력의 일부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양자대전 사이 삼국연합 왕국시기(1918-1941)와 티토 Josip Broz

Tito의 유고 연방 시기(1945-1991)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통합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발칸의 다민족 사회를 무력으로 하나의 국가에 복속시키려는 제국주의적 간섭인가 하는 점이었다. 서구의 언론 및 정치가들 대부분이 후자의 입장이었던데 반해, 페터 한트케는 세르비아인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소수였던 전자의 입장을 취했는데 이런 대립이 1990년대 ‘한트케 논쟁’이 십여 년 간 이어진 기본 구도였다.⁶⁾

사실 사회주의 유고 연방 시기에도 민족주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세르비아와 더불어 구 유고에서 두 번째로 강한 민족세력이었던 크로아티아에는 연방 시기 내내 민족주의적 분리 움직임이 상존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 초 보다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던 개혁운동 소위 ‘크로아티아의 봄’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일찍이 오스트리아 사민당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오토 바우어 Otto Bauer (1881~1938)도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사회주의 계급투쟁은 민족주권에 대한 열망과 민족갈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바우어 2006). 티토 역시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서로 적으로 맞섰던 발칸의 남슬라브인 민족들을⁷⁾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 내려면 연방 내 개별 민족들에

6) 소위 한트케 논쟁은 보스니아 전쟁이 종결된 직후 1996년 1월 신문에 게재된 그의 세르비아 여행기에 의해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다. 하지만 발칸반도 또는 유고지역과 관련된 한트케의 글쓰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 남단 슬로베니아인들 거주지인 케른텐 출신이라는 그의 가족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 지역 인간들의 삶과 역사는 자연스럽게 그의 문학의 소재가 되었다. 한트케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 인기를 누린 두 개의 소설은 자살한 어머니의 인생을 소재로 한 『소망 없는 불행 Wunschloses Unglück』(1972, WU)과 슬로베니아 출신 외가의 불행한 전쟁 기억을 재구성한 『반복 Die Wiederholung』(1986, DW)이었다. 이 시기를 그의 발칸문학 제 1기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유고 해체전쟁에 대결한 『다시 한 번 투키디데스를 위해 Noch einmal für Thukydides』(1990/1995, NT), 『동화나라로부터 몽상가의 이별 Abschied des Träumers vom Neunten Land』(1991, ATN), 『도나우, 사바, 모라바, 드리나 강으로의 겨울여행 또는 세르비아에게 정의를 Eine winterliche Reise zu den Flüssen Donau, Save, Morawa und Drina oder Gerechtigkeit für Serbien』(1996, ERF) 『겨울여행의 여름 후속여행 Sommerlicher Nachtrag zu einer winterlichen Reise』(1996, SNR)은 제 2기에 해당한다. 이 텍스트들은 유고 전쟁에 대한 작가의 핵심적 정치적 문학적 입장을 담았고, 본격적으로 한트케 논쟁을 유발했다. 제 3기는 코소보전쟁과 그 이후 집필된 텍스트들로 작가는 기존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장르와 방식으로 유고 관련 글쓰기를 이어간다. 『통나무배 여행 또는 전쟁영화에 대한 극 Die Fahrt im Einbaum oder Das Stück zum Film vom Krieg』(1999, DFE), 『눈물 속에 묻느니. 두 유고횡단여행의 후기 Unter Tränen fragend. Nachträgliche Aufzeichnungen von zwei Jugoslawien-Durchquerungen im Krieg』(2000, UT), 『대법정을 맴돌며 Rund um das Große Tribunal』(2003, RGT), 『다이미엘의 타블라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에 대한 우회증인의 보고 Die Tablas von Daimiel. Ein Umwegzeugenbericht zum Prozeß gegen Slobodan Milošević』(2006) 『모라바 강의 밤 Die morawische Nacht』(2008, DN), 『벨리카 호차의 빼꾸기 Die Kuckucke von Velika Hoča』(2009, DKV), 『여전히 폭풍 Immer noch Sturm』(2010, IS)이 그 예이다. (발표년도 뒤의 작품명 약어는 본문에서 사용할 것이다.)

게 충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티토는 착취적 위계질서 없이 공통의 사회주의 이념 아래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최종적으로 민족주의는 희석되고 연방은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는 “공화국간의 경계선은 둘에 새겨진 단순한 선으로, 모든 민족들 상호간을 연결시켜 주는 선이라”(바타코비치 외 2001, 401)고 늘 강조하였다. 티토는 필요하다면 1971년 저항운동을 진압한 것처럼 민족주의자들을 대규모로 숙청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티토가 유고 연방이라는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민족들에게 부여했던 자치권은 연방의 정치경제적 통합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잠재적 힘으로 역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⁷⁾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통제가 약해지고,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서 개혁운동이 급속히 전개되자 유고 내의 민족주의 흐름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유고 내 개별공화국들은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개혁하고 보다 많은 자치권을 갖거나 또는 연방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직면해 중앙세력, 즉 세르비아 유고인들은 연방체제를 지키고자 맞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1년 세르비아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슬로베니아가 독립하고 나자, 연방을 지킨다는 정치적 명분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1987년 이래 권력을 장악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Slobodan Milošević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연방에서 분리하여 국가독립을 선언한 개별 공화국 내 세르비아인들이 소수집단으로서 정치적 차별의 위협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수집단 민족에 대한 이들의 반격이 과감하고 무력적이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세르비아인들의 국가’에 대한 권리, 소위 대세르비아주의에 대한 전체 세르비아인들의 정치적 공감 및 세르비아의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관이 있었다.

7) 세르비아인들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반나치스 슬라브 저항운동의 중심세력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크로아티아는 1941년 나치의 침공 이후 파시스트들인 우스타샤가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독재 권력을 휘두르며 나치에 협력하였다.

8) 독일인이 전체 5천만 신민의 약 20% 수준에 불과했던 다민족, 다문화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역시 국가통합의 원칙과 민족자치권 사이의 줄타기를 해야 했다. 티토의 자치권을 통한 국가통합의 원칙은 바로 오스트리아제국의 국가통치 원리이기도 했다. 그래서 티토는 ‘최후의 합스부르크인’이라고 지칭되기도 하였다(바타코비치 외 2001, 402).

정리하자면, 한편에서 유고 전쟁은 개별 공화국의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주도한 민족주의적 분리주의의 대 남슬라브인들의 대공동체 이념을 지향하는 연방의 통합적 국가주권의 대립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발칸 민족들의 민족주의의 대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후자를 인정할 경우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실질적으로 유고 연방 중앙권력을 장악한 세르비아가 남동유럽 발칸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즉 패권적 민족주의의 관심에서 타민족의 국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자체로 다민족 사회인 유고의 공화국들이⁹⁾ 단일한 민족 중심의 국민국가로 독립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많은 동포가 세르비아공화국 국경 외부에 거주했던 세르비아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민족주의적 투쟁을 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이다.¹⁰⁾ 예상할 수 있듯이 유고 전쟁에서 세르비아와 적으로 싸운 민족들은 현재 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은 후자의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르비아 내 자치주인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1968/74의 자율권 확대를 코소보 발전의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유고 내에서 독자적인 공화국으로의 상승”이 거부된 것을 비판하며, 그 때문에 유고 내에서 “알바니아인들은 차별을 받아왔다고”(Schmitt 2008, 34) 주장한다. 그에 반해 같은 사안에 대해 세르비아인들은 “이제 알바니아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이 지역에서 세르비아인들을 체계적으로 몰아내었다고”(Schmitt 2008, 31) 주장한다. 따라서 1989년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의 자치권을 다시 회수한 것은 적들에 의해 포위된 세르비아인들의 자기방어 행위”(Schmitt 2008, 31)라고 평가하는 데 반해,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1989년

9) 현재 각 국가의 인구를 대략 보자면 크로아티아 420만 명, 슬로베니아 206만 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53만 명, 마케도니아 200만 명, 몬테네그로 64만 명, 세르비아 706만 명이다. 전쟁발발 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보스니아 무슬림이 약 41%, 세르비아인이 37%, 크로아티아인인 17%, 그리고 기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다민족 구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특히 세르비아인들은 서쪽 국경에 맞닿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프스키 공화국 등 발칸 전체에 분산되어 거주하는데 이를 다 합치면 약 천만 명에 달한다.

10) 소수민족집단의 분리·독립 욕구가 어디까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 불법인지 구분하는 것은 늘 쉬운 문제가 아니다.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는 국민투표와 정치적 협상과정을 통해 체코로부터 평화적으로 분리했다. 인구 540만 정도의 슬로바키아는 연방 시절 체코에 비해 분명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민주적으로 분리·독립하였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지지하였다. 인구 약 755만 명인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주는 문화, 역사, 언어의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카스티야 중심의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를 원했고, 2017년 분리·독립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91.96%의 찬성 결과를 얻어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카탈루냐 정부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유럽연합은 독립한 카탈루냐가 회원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의 자치권 회수를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억압적 행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코소보 문제를 1995년 데이튼 협정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무력투쟁에 나섰다. 또한 “코소보 해방군”은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정부가 알바니아인들을 대량으로 추방하자” “세르비아 치안대를 공격해서 결국 나토의 개입을 끌어냈고, 게릴라투사들과 함께 코소보를 해방했다”(Schmitt 2008, 34)고 자부하고 있다. 반면 세르비아인들은 나토의 개입에 대해 “나토의 제국주의적 공격(1999)으로 세르비아 민족은 코소보를 빼앗겼고 코소보 세르비아인들의 고통은 커졌다”(Schmitt 2008, 31)고 비판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들은 현재의 세르비아인들 스스로 현대의 역사와 유고 전쟁을 티토 사회주의 유고의 유산을 수호하려는 관점에서보다 세르비아 민족의 권리침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현재 세르비아의 영토 경계는 전체 세르비아인들이 하나의 국가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것이라는 견해는 19세기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에서 부상한 생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티토의 유고 연방은 오히려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억압한 정치체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측근이었다가 반대파가 된 밀로반 잘라스는 “티토가 ‘세르비아의 중앙집권주의와 헤게모니’를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가장 큰 장애”로 여기고 “세르비아인들을 6개의 공화국 중 5개의 공화국으로 나눠 분리했다”(바타코비치 외 2001, 401)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80년 티토 사후 동구권 전체의 체제위기가 가시화되자 보상욕구와 결부된 세르비아 민족주의는 주류 지식인들에 의해 다시 접화되었다.¹¹⁾ 그리고 이런 역사해석의 경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도적인 신진 역사학자들 역시 나치 침략기 런던 망명정부 수상이었던 슬로보단 요비노비치의 아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된 반세르비아 선전선동 중 하나는 세르비아가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 얻은 국경선 밖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유고슬라비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1878년 국경선 밖에서의 우리의 요구사항을 세르비아 쇼비니즘의 발로로 보았으며, 심지어는 세르비아의 연방화를 결정한 티토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쇼비니즘이라고 간주했다.

11) 1986년 세르비아 과학예술 학술원은 유고 연방이 공화국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오히려 세르비아인들의 권리가 위축되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SANU Memorandum).

이와 같은 시각으로는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인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그들에게 남긴 국경선에 만족해야 할 것이며, 합스부르크가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남슬라브 민족들의 통일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바타코비치 외 2001, 401 이하)

앞서 언급했듯이 1989년 코소보가 세르비아의 자치주에서 유고 연방내 자치 공화국으로 격상되기를 요구하자, 밀로세비치는 1389년 오스만 터키에 맞서 암펠펠트 Amsfeld 전투가 벌어졌던 소위 ‘민족의 성지’인 코소보를 다시 세르비아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다시 점화된 대세르비아 이데올로기의 열기 속에서, 이후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전쟁의 전범으로 기소되어 2006년 옥중 사망한 밀로세비치는 ‘민족의 영웅’으로서 세르비아인들에게 칭송되었다.

오 세르비아, 신의 은총으로/ 너는 우리에게 슬로보단을 주었네/ 왜 숲은 잎을 떨구는가/ 코차라 산에서 바다까지/ 프리즈렌에서 크닌까지/ 세르비아의 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우리나라는 해방되었네/ 터키인들[무슬림들]과 우스타사들[크로아티아인들]/ 그리고 슈바벤사람들[독일인들]과 헝가리인들/ 라틴사람들[가톨릭교인들]과 알바니아인들로부터. 오 너 성스런 사바 강의 세르비아여/ 슬로보, 우리의 머리를 구해다오. 세르비아의 어린이도 그를 축하한다/ 성스런 나라를 하나로 만든 자를.¹²⁾

2. 새로운 유럽의 공간질서와 ‘발칸’ 정치학

서유럽 국가들과 나토는 유고 전쟁을 무엇보다 개별민족들의 해방·독립운동으로 이해하였다. 서유럽 정치학에서 국민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과 자유의 규범을 실현하는 정치체제로 규정된다. 유고 연방의 공화국들이 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국민국가로 재탄생한다면, 그것은 이제 표준화된 서유럽의 정치공간에 접속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고 연방이 자유주의

12) Oh Serbien, von Gottes Gnaden/ du hast uns gegeben den Slobodan/ warum entblättert sich der Wald/ von der Kozara bis zum Meer/ von Prizren bis nach Knin/ ertönt da Jauchzen des serbischen Sohnes. Befreit ist unser Land/von Türken [Muslimen] und Ustaschen [Kroaten]/ Und von Schwaben [Deutschen] und Ungarn/ von Lateinern [Katholiken] und Skipetaren [im Original: Siptari]. Oh, du Serbien des heiligen Sava/ Sloba, rette unsere Köpfe, es feiert ihn auch das serbische Kind/ den Vereiniger des heiligen Landes.(Schmitt 2008, 308)

개혁을 원하는 개별민족의 독립의지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르비아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인 것이다. 이에 반해 페터 한트케는 유고 연방의 국가적 정체성을 19세기 독일인들의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 그 이후 전반기 세르비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 왕국에서의 공존의 경험과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공동의 반나치 투쟁의 역사로 소급시킨다.

내 생각에, 그렇게 서로 다른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들을 통합해준 것은 금세기의 두 가지 사실이었다. 그 사실들 덕분에 분명 그들의 통합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18년 합스부르크제국이 끝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국가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뭉쳤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했던 통합이었다. 이 국가 안에서 개별 나라들은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식민지일 필요도, 그 각각의 언어는 더 이상 노예들의 입방아질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 다음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대독일에 맞선 공동의 투쟁이었다. -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파시스트를 제외하고 - 유고슬라비아 민족들, 상이한 정당들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세계관들이 함께했다.¹³⁾

따라서 한트케가 보기에 유고 전쟁은 중동부 유럽의 지배자였던 거대한 제국들에 저항했던 작은 남슬라브 민족들의 해방과 자유, 연대와 공존의 역사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역사적으로 비윤리적인 전쟁인 것이다. “위대한 저항정신의 유고슬라비아”(ATN, 14)라는 역사적 공동체와 그 정신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고 연방 내외의 주체들은 무력적 간섭 외에 “새로운 역사를 펴뜨리고”(ATN 14)있는데, ‘중부유럽 Mitteleuropa’이라는 내러티브는 바로 그런 예이다. 실제로 중부유럽이라는 내러티브는 주로 비셰그라드 동유럽 4개국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부상하는 지역성 개념으로, 여기에는 자신들을 독일어권 유럽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이들 국가들은 가톨릭 및 개신교, 그리고 라틴문자 사용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공통점을 근거로 독일어권 유럽과 동일한 지역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국을 표

13) Zwei Daten in diesem Jahrhundert waren es, welche, glaubte ich, die so verschiedenen jugoslawischen Völker einigten und auf Dauer einighalten müßten: ihr eher ungezwungenes, für viele sogar enthusiastisches Zusammenfallen 1918, mit dem Ende des Habsburgerreichs, erstmals in einem eigenen Reich, wo die einzelnen Länder keine schattenhaften Kolonien mehr, die einzelnen Sprachen kein Sklavengemunkel mehr zu sein bräuchten; und im Zweiten Weltkrieg dann der gemeinschaftliche Kampf der Völker Jugoslawiens, auch der unterschiedlichen Parteien und der einander widersprechenden Weltanschauungen - ausgenommen fast nur die kroatischen Ustascha-Faschisten - gegen das Großdeutschland.(ATN 13)

준적이고 일반적인, 즉 정치경제적 자유주의 규범이 지배하는 선진 유럽사회의 일부로 이해하고자 하는 정체성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부유럽 내러티브가 동유럽, 특히 남동부지역을 유럽의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변방으로 규정하고 신화화 했던 소위 ‘발칸’ 내러티브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¹⁴⁾ 유고슬라비아라는 저항의 역사공동체와 그 정신을 강조하면서 한트케는 이 사실에 주목하는데, 유럽 열강들이 이 지역에 대해 구사했던 차별적 정체성의 내러티브를 바로 이 지역의 새로운 엘리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수용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얼마나 슬프고 또 분노할만한가. 밀란 쿤데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몇 주 전 르 몽드지에 게재한 ‘슬로베니아의 구원’을 위한 호소문에서 크로아티아와 함께 슬로베니아를 세르비아의 ‘발칸’과 구분하면서 맹목적이게도 유명 같은 저 ‘중부유럽 *Zentraleuropa*’에 귀속시키다니. 이 중부유럽을 지배했던 황제들이 과거 그의 슬라브 체코어를 (.....) 야만적인 짬뽕언어라고 폄하하려고 들지 않았던가! (ATN 17)

이 지역공간의 정치학에 대한 한트케의 이러한 관점은 1990년대 동유럽을 유럽의 일부이자 유럽 안의 식민지로 해석하는 데 결정적 전환점을 제시한 마리아 토도로바의 견해에 닿아있다. 토도로바는 냉전 이후 세계의 권력 및 갈등 구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부유럽과 발칸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이 서구 정치와 언론에서, 특히 미국의 학계에서 새롭게 부상하였다고 지적한다. 냉전시기 소위 동유럽 *Osteuropa*은 소련을 중심으로 그 주변 위성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적 지리적 개념이었다. 이 군사정치 동맹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경우 유라시아 대국이라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 지역에 있는 유럽을 고유하게 동유럽으로 지칭하게 되었는데, 이 동유럽을 다시 동중부유럽 *Ostzentraleuropa*과 남동부유럽 *Südosteuropa*으로 세분하였다고 지적한다. 토도로바는 1990년대 중부유럽을 구분해 내리는 시도는 바로 이 지역 지식인들, 예를 들면 유럽을 기독교 3개 종파 지역으로 나누었던 헝가리 역사학자 스치츠 Jenő Szűcs, 유럽전체로 가는 문화적 경계지역으로서의 중부유럽을 강

14) 차별적 개념으로서 발칸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마조워 2006; Todorova 1999.

조한 작가 밀로츠 Miloz, “작은 민족들로 구성된 하나의 가족이라는 중부유럽의 정체성이 보다 큰 유럽적 경험의 불가결한 부분요소”(Todorova 1999, 208)라고 생각하는 밀란 쿤데라 등의 기존 발상에 착안한 것임을 지적한다. 그런데 동유럽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구분은 “하나의 동질적인 서유럽”이라는 표상에 대비된 것으로, 보다 크게 보면 모순적이게도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네 개의 동쪽 [지역] (근동, 중동, 극동, 동유럽)과 하나뿐인 서구, 즉 자기 자신”이라는 위계적 질서로 이해하려는 “서유럽의 신드롬”(Todorova 1999, 202)에 대한 동조라고 지적한다.

1991년 유고 연방에서 제일 먼저 분리한 슬로베니아의 정치적 기류의 변화에서 한트케는 토도로바가 지적한 바로 이러한 자기부정의 공간정치학을 읽어낸다. 낭독모임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많은 슬로베니아 작가와 지식인들이 ‘그들의 대 유고슬라비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중부유럽 쪽으로’ 또는 ‘유럽’ 혹은 ‘서구’로 향해 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한트케는 어느덧 “슬로베니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은 남쪽 경계에 세르비아인들, ‘보스니아인들’을 막는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저자거리의 얘기를 듣게 된다.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게”(ATN 24). 그리고 그들이 대는 이유는 바로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적 발칸’이라는 19세기 제국주의 내러티브의 변용이다. “저 아래 쪽 사람들은 일을 안합니다. - 남쪽 사람들은 게으르죠 - 우리 북쪽 사람들의 집을 차지해버리죠 - 우리는 일하고 저들은 먹어대죠”(ATN 24). 이런 새로운 자기부정의 발칸정치학을 목도하면서 한트케는 남슬라브인 민족 전체를 품었던 커다란 유고 연방을 19세기 약육강식의 식민지 위계질서가 극복된 평화와 진정한 삶의 공간으로,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공간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분리주의를 민족 이기주의거나 유희적 경솔함으로 간주하였다(ATN 26 이하). 예컨대 슬로베니아의 국가독립은 갑작스러운 발상으로 “티토 사후 몇 년 까지도 유고슬라비아 국가에 대한 열광이 지배적이었고, 지속되었다”(ATN 26)고 그는 증언한다. 여러 민족의 젊은 세대들이 축제와 행사에서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드러냈던 “열광 Enthusiasmus”(ATN 27)은 “더 이상 어떤 이데올로기, 티토주의, 빨치산정신이나 재향군인정신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ATN 26 이하)고 말한다.

한트케가 생각한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는 분명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기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던 반파시즘이데올로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유고 연방의 정치적 정당성을 독일인들의 제국주의와 나치즘에 대한 공동의 저항, 그리고 그

저항을 통해 얻어낸 이들 남슬라브 민족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에 대한 역사적 자부심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유고 전쟁을 판단하는 한트케의 잣대는 서구의 국민국가 규범도, 티토의 사회주의 국제주의 규범도 아니다. 그의 잣대는 공동의 식민지 투쟁과 만나치즘의 역사, 그리고 도나우 강으로 합류해 들어가는 강들과 석회암의 산들과 판노니아 평원으로 이루어진 자연지리적 삶의 공동체라는 인간학적인 가치였다. 바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흘러드는 도나우 강의 지류들을 품은 슬로베니아의 도시 루블라나 Ljubljana와 마리보 Maribor 곳곳에서 슬로베니아인들이 자신들 남슬라브 민족들의 삶의 공간을 차별적으로 경계 짓고 구분하려는 행위(ATN 24)는 한트케의 눈에 비극적인 자기배반이자 자기모순으로 비쳐진다. 1991년 유고 전쟁 시작부터 1999년 코소보 전쟁까지 유고 연방에 대한 한트케의 변함없는 지지는¹⁵⁾ 바로 이러한 제 3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독일인들의 제국주의 역사와 나치즘에 대한 한트케의 비판적 윤리적 감수성은 68세대의 일반적 반권위주의의 뿐 아니라 독일인 아버지와 슬로베니아인 어머니를 둔 오스트리아 변방 케른텐 출신이라는 자전적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어권 제도권에서 케른텐 촌놈인 이방인으로 성장한 경험, 전후 독일 사회의 보수적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는 오스트리아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이 함께 작용하여 한트케는 외가의 슬로베니아 고향과 슬라브인들의 저항의 역사에서 정신적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질서와 국가적 공간을 역사적이고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이상화 할수록 현실정치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와 동기들을 도외시할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대세르비아주의의 역사적 주권에 대한 주장이 현실의 영토와 국경의 국제규범을 무시하도록 자극하는 반동적 정치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전쟁의 진행과 더불어 세르비아가 유고 연방의 민족 간 공존이라는 정치적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그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1년까지 유지되었던 유고라는 국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저 정치적 이상을 세르비아인들이 대변하며, 그들은 유럽연합과 나토라는 또 다른 제국주의 권력정치의 피해자라는 보수 좌파적 입장을 한트케는 견지한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축소된 ‘잔여유고슬라비아

15) 1999년 코소보 전쟁 중에 세르비아를 찾은 작가는 자신이 여전히 유고슬라비아에 발을 디뎠음을 나지막하게 기뻐하며, 서구 언론이 대유고 전쟁이 아니라 코소보 전쟁으로 지칭하는 것을 비판한다(UT 24).

Restjugoslawien’의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유고 전범재판에 대해 발언하고, 밀로셰비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공개적 행보를 감행한 것은 바로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제 3의 관점에 대한 주관적 권리를 내세운 것이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아머추어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트케는 서구 언론에서 ‘전범국가 세르비아’를 대신하는 구체적 공격목표물이 되었고, 그래서 한트케논쟁은 그렇게 길고 격렬하게 이어졌던 것이다.

Ⅲ. 강을 따라간 세르비아 여행기 - 정치언어비평과 공간의 시학

1. 전쟁저널리즘과 한트케의 언어비판

1995년 11월 부인 소피 Sophie Semin, 그리고 두 명의 세르비아 친구를 대동한 4주간의 세르비아 여행을 보고한 여행기는 한트케 논쟁을 점화시킨 핵심텍스트였다. 사라예보 포위와 스레브레니차 학살로 인해 이미 유고 전쟁의 핵심 전범국가로 각인된 세르비아로¹⁶⁾, 그것도 단순한 여행객으로 후설의 의미에서 생활세계를 살펴보겠다는 그의 여행기가 1996년 1월 초 두 주말에 걸쳐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게재된 이후, 한트케의 작가로서의 명성은 되돌릴 수 없게 달라졌다. 이 작품으로 인해 작가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비판과 분노”(Miguoué 2012, 72)의 포화를 여론으로부터 그것도 십여 년 넘도록 받게 된다.¹⁷⁾ 한트케

16) 한트케가 세르비아로 여행을 계획한 1995년 11월은 4년을 끌어온 보스니아 전쟁이 테이트 협정(1995. 11. 21 가조인, 12. 14 파리에서 공식 조인)으로 종결되기 직전 상황이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엔의 경제 제재로 사회기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서구의 미디어들은 보스니아 스프스키 공화국의 지도자 라도반 카라쥐치 Radovan Karadžić의 민병대가 포위한 사라예보로부터 많은 참혹한 사진들을 연일 전승하고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라예보 공습과 1995년 7월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 자위대에 의해 2천명 보스니아 무슬림이 학살된 세르비아 국경도시 스레브레니차 Srebrenica 사건은 유럽의 언론과 지식인들을 경악시켰다. 서구 언론에서는 잔인한 가해자 세르비아인들 대 순진한 보스니아 무슬림 피해자라는 이분법이 이미 고착되었고,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인들은 나치와 파시스트에 비유되고 있었다.

17) 전범국가 세르비아를 옹호한 작가라는 비판은 2014년 9월 오슬로 입센 연극상 수상을 둘러싸고 도 벌어졌다. 시상식 입구에 진을 친 시민들 백여명은 ‘나치’, ‘파시스트’ 등의 구호로 한트케를 비난하였고, 한트케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적 소통방식의 오용”이라는 소감으로 반응하였다. 시상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그는 약 30만 유로의 상금 중 일부를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 고립 거주지인 벨리차 호차 Velica Hoca의 수영장건립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노르웨이정부에 반납한다(Imer 2014).

의 세르비아 여행기에 대한 최초의 언론 반응은 기사의 제목들만 일별해도 짐작할 수 있다. 한트케는 “유고슬라비아 살인재판의 사랑하는 판사”로, “고독한 진실의 탐구자”로, “정치적 몽상가”¹⁸⁾로 조롱되거나, “사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전쟁과 피와 땅에 대한 망상”을 가진, “스탈린주의라는 비난”¹⁹⁾을 받는 인물로 격렬한 정치적, 도덕적 폄하를 받게 된다.

신문 기고 시 제목으로 ‘세르비아에게 정의를’을 내세운 것은 작가가 이 여행기로 미디어의 현실정치적 논쟁구조에 접속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말해준다. 제목 배치의 선택이 편집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소한 작가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한트케의 의도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후 언론의 수많은 논쟁에서 헤드라인처럼 반복된 이 부제는 서구의 대다수 매체가 세르비아를 인종청소를 돕는 전범국가로 규정하고, 몇 년 째 참혹한 증거 사진들이 언론매체를 도배하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스캔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행기 제목의 재배치가 센세이션을 추구하는 일간지 미디어의 전략이라는 지적은 나름 일리가 있다(Miguoué 2012, 80).

한편 책 형식의 출판에서 발칸의 강을 따라가는 겨울여행을 강조하는 식으로 제목이 배치된 것은 주관적이고 미학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텍스트의 미중심을 이동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문고판 130쪽 가량으로 출판된 이 여행기는 일부 격렬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분명한 형식구조를 가졌는데, 여행 전 준비 과정을 다룬 프롤로그 30쪽,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기 1부 35쪽, 보스니아와의 경계인 드리나 강 바이나 바슈타 Bajina Bašta 마을로 찾아 나선 오지 여행기 2부 30쪽, 그리고 귀향 이후의 얘기를 다룬 에필로그 2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의 서술태도 역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논평과 주관적이고 미적인 체험의 묘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줄타기를 한다. 약 30여 년 전 청년으로 하루 반 정도 머물렀던 세르비아의 수도에 대한 짙은 기억을 떠올리며 시작되는 프롤로그는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18) Hans Haider: Der Dichter als ein liebender Richter im jugoslawischen Mordprozeß, in: Die Presse, 8. Jan. 1996; Thomas Schmid: Einsamer Sucher nach der Wahrheit, in: tageszeitung, 16. Jan. 1996; Christoph Kuhn: Provokation eines politischen Träumers. Peter Handke fordert Gerechtigkeit für Serbien, in: Tages Anzeiger, 18. Jan. 1996(Gritsch 2009, 15ff.).
 19) Dpa: ‘Keine Lust auf Fakten’, in: Frankfurt Allgemeine, 15. Jan. 1996; Gustav Seibt: Wahn von Krieg und Blut und Boden. Serbien ist Deutschland: Zu Peter Handkes beunruhigendem Reisebericht, in: Frankfurt Allgemeine, 16. Jan. 1996; Reinhold Smoning: Stalinismus-Vorwurf gegen Handke, in: Presse, 17. Jan. 1996(Gritsch 2009, 15ff.).

이 여행이 사적이고 친밀한 행위일 것으로 일순간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4년 전 슬로베니아 동부 부코바르를 파괴한 전쟁, 그리고 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르비아로 여행할 생각이었다는” 첫 문장은 이 여행이 작가의 정치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그것은 지난 4년간 언론과 방송의 보도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것과 상관이 있음을 화자는 밝힌다.

내가 세르비아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길 ‘공격자들’의 나라라는 그곳으로 여행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전쟁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조금 알고 있는 그 나라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내 마음을 끌었다. 그건 아마 그 나라에 대한 소식과 견해들 덕분이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그것에 가장 마음이 끌렸다. 그 나라에 대해 아뭏게든 풍문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 가장 흥미로운 것이었다. 지난 4년 간의 거의 모든 사진과 보고들은 전선 혹은 경계의 한 편에서 왔다. 가끔 한번쯤 다른 편에서 왔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흔한, 연습된 관점의 단순한 반영, 즉 우리 시세포 자체에서 틀어져 비춰진 것 같아 보였다.(ERF 38 이하)

위 인용문에 따르면 작가가 세르비아로 여행하고 싶도록 만든 것은 무엇보다 세르비아에 대한 독일과 서구 저널리즘의 보도와 방송이다. 포화가 가득한 사라예보의 희생자와 공격자들에 대한 기사와 자료는 대다수가 경계의 한편에서, 즉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왔으며 세르비아에서 온 경우도 왜곡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한편으로 자신 역시 1992년 봄 보스니아 전쟁에 대한 최초의 보도와 시각자료를 접했을 때, 사라예보의 산과 구릉지에서 찍힌 “무장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을 “인류의 적”으로 느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학살로 인해 역사에서 한 번도 가해자였던 적이 없는 세르비아인들이 [...] 카인의 민족이 되었다”(ERF 63)는 망명 세르비아 재야인사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스페인 대표적 일간 신문인 『엘 파이스 El País』에서 비참하게 홀로 죽어 누워있는 사라예보 어린이의 사진을 보았을 때, 보스니아 세르비아 정부의 주장인 라도반 카라쥐치를 왜 아무도 암살하지 않는지 자문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전쟁을, 이 전쟁보도들을 믿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보스니아인들과 세르비아인들은 언어, 인종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크로아티아인을 포함한 세 민족이 대도시를 넘어 작은 마을과 마을 사이, 또 한 마을 내에서도 집들과 집들이 서로 교차한 채로 함께 섞여 사는 이 나라에서 보스니아인들의 단일 민족국가를 만드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밝힌다(ERF 64 이하). 그런데 “소위 세계여론에서는 너무 빨리 이 전쟁에서도 공격자와 피해자의 역할, 순수한 희생자와 완전한 악당의 역할이 확정되고 고정관념화 되었다”고 지적한다. 편파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한트케의 비판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 예컨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보도는 심히 불균형하게 보스니아인들에 관련된 것이고, 크라이나에서 추방되는 세르비아 난민들에 대한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은’ 앞서 다른 민족을 추방했었다고 암시”한다는 것이다. 당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유고 전쟁의 전범피의자로 공표한 현황, 즉 “47명의 세르비아인, 8명의 크로아티아인, 무슬림 1명”(ERF 66)은 앞서 저널리즘이 재현한 유고 전쟁의 이분법적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세르비아 전쟁희생자는 “결코 클로즈업으로, 개인별로 보여주는 법이 없고, 언제나 몇 명을 함께 그리고 거의 중경이나 멀리 배경으로만” 보여주는데, “고통에 가득 차 카메라에 정면으로 시선을 던지는 크로아티아인이나 무슬림과 달리” 저들은 “측면이나 바닥으로 시선을 향한” 사진뿐이라고 지적한다. 아마도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처럼”(ERF 68) 보이게 만들려는 것인지 화자는 묻고 있다. 르몽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뉴욕 타임스, 가디언, 엘 파이스와 같은 서구의 주요 언론에 대한 한트케의 비판은 이들이 이분법적 구도로 유고 전쟁을 재현하기 위해 왜곡된 보도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991년 이후의 저널리즘이 1914년과 1941년처럼 독일인들과 오스트리아인들의 머릿속에 이웃 민족에 대한 왜곡되고 고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다. 그는 “누가 비록 작은 낚양스 정도라도 이 역사를 다르게 쓰게 될지”(ERF 76) 물으며 프롤로그를 마친다. 아마도 작가의 여행기가 그런 대안적 역사쓰기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은 희망의 표현이리라.

한트케의 밀로셰비치에 대한 지지와 세르비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유고 전쟁 저널리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보스니아 전쟁의 경우 주로 사라예보에서 전송된 많은 사건들은 보스니아측이 제시한 자료와 소식에 의지했으며, 많은 보도들이 후에 오보로 밝혀졌다. 유고 전쟁에서 미디어가 제 3의 관점에서 전쟁을 보도했다기보다 오히려 종종 “함께 싸우는 주체 Mitkriegsführende(n)”(Barock 1993, 16)였다는 지적

이 있다. 이에 대한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의 필립 해먼드 Philip Hammond의 견해를 들어보자. 그는 “BBC의 [...] 특파원 마틴 벨은 선과 악 사이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피해자와 억압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보도 스타일을 위해 “연대 저널리즘 journalism of attachment”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해먼드 2007, 244). “냉전의 종식은 서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신을 양양해주는 공통적인 모적을 갖아”갔는데, “명분을 옹호하는 저널리즘은 지도자들이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명시할 수 있도록 도덕적 어휘를 정교하게 정리”(해먼드 2007, 245)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사명을 정당한 전쟁의 새로운 목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환이 1992-1995년 보스니아 전쟁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이후 코소보 전쟁에서 반복되었는데,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외쳤듯이 유고 내전은 “선과 악의 싸움, 문명과 야만의 싸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해먼드 2007, 246)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표적 다문화사회인 보스니아는 미국과 유럽사회의 이상처럼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순진한 희생자로, 반면 세르비아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집단학살도 마다치 않는 광적인 민족주의자들로 규정함으로써 보스니아 전쟁에서 우리 편과 적의 경계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한트케의 세르비아 여행기는 이처럼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결탁한 명분과 당위를 뒷받침하는 저널리즘의 이분법적 언어에 맞서 유고의 또 다른 현실을 발견하고 환기시키려는 언어예술가로서의 주관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전쟁이 제일 먼저 파괴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언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애와 도덕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내세우려는 전쟁저널리즘의 정치언어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 비판 자체가 대중미디어의 소통구조에서 소비되면서 현실정치적 이분법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지배하는 전쟁의 세계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비도덕적 도발을 저지른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여행기는 작가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증명부담”을 지게 되었고, 문장의 모든 세부 표현들은 “입장표명”(Honold 2010, 203)으로 추궁되었으며 현실의 조작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명망을 누리는 우리 내부의 인물이 우리의 가치와 규범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배반이며 배반한 자에 대한 분노는 종종 진짜 적에 대한 분노보다 클 수 있다. 한트케에 대한 지식인과 언론의 비난과 집중포화는 단지 ‘이성을 잃은 한명의 작가’ 훨씬 이상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그것은 서구세계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자

기방어의 의지이자, 그 전제가 되는 규범과 자기이상이 의문시된 것에 대한 격렬한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2. 강들이 만드는 발칸 토포그래피 - 희망을 위한 공간의 시학

약 130여 쪽의 세르비아 텍스트 중간 약 65쪽을 차지하는 본격적인 여행기는 다시 2부로 나누어 있다. 이중 여행기 1부는 35쪽인데 제목에서 나열된 앞 쪽 3개의 강 도나우, 사바, 모라바 강으로의 여행을 다루며, 30쪽인 여행기 2부는 드리나 강으로의 여행에 대해 얘기한다. 여전히 경제 제재 아래 있는 베오그라드 중심에서 약 15km 서쪽 수르친 Surčin에 위치한 공항에 도착한 후 들판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불을 피우는 모습들에 간혹 눈길을 던지며(ERF 79), “미완성인 채”로 건물들이 늘어선 사바 강 서쪽의 신도시를 거쳐(ERF 80) 4명으로 구성된 화자 일행은 사바 강과 도나우 강의 합류지점이 눈에 들어오는 베오그라드의 모스크바호텔에 짐을 푼다.

여행기 서두에서 밝혔듯이, 화자의 관심은 후설의 의미에서 생활세계, 또는 렌츠 Hermann Lenz의 의미에서 ‘우연히 바깥에서 *nebendraußen*’ 보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제 3의 것 *solch Drittes*’(ERF 77)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있다. 따라서 세르비아의 정치적 중심이자 “발칸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도시”(ERF 79)인 백만 인구의 베오그라드가 화자에게 여행의 거점이기기는 하나 여행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화자 일행은 “사바 강 건너”(ERF 88) 베오그라드 서북 경계에 있는 도나우의 작은 위성도시 제문 Zemun, 도나우로 예자바 Jezava강이 흘러드는 합류지점, 전형적 세르비아 내륙의 풍경인 “가벼운, 균형 잡힌 구릉(알바 산 *Berg Alva*)과 광활한 지평선”을 품은 소도시 스메데레보 Smederevo, 그리고 동쪽 루마니아 방향 “많이, 아니 너무 많이 칭송된” 강, “터키인과의 전쟁, 발칸전쟁으로 인해서 상징적 역할이 강요된”(ERF 98) 모라바 강 건너 루마니아 경계 근처의 작은 마을 포로딘 Porodin, 그리고 베오그라드 근교 중소도시 크랄레보 Kraljevo의 크라구예바츠 Kragujevac를 여행한다. 게다가 크랄레보의 마지막 일정을 제외하고는 준 공식적인 성격의 행보는 전혀 없다. 우연히 전설을 듣고서 또는 친구 출라트코 Zlatko의 부모님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움직이는 식으로, 대다수 일정이 사적이고 즉흥적인 인상을 풍긴다.

주목할 것은 세르비아인들의 생활세계를 보여주는 이 작은 도시와 장소들은 모두 도나우, 사바, 모라바 강을 따라 위치하거나 그 강의 다리들을 건너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베오그라드는 문명의 대도시가 아니라, 강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의 생활공간들을 이어주는 자연 지리적 중심이 되는 것이다. 발칸의 생활공간을 이어주는 이 강들은 거대한 “베오그라드 또는 제문의 도나우”로 합류하는데, 이곳의 도나우는 “그 폭이 너무 엄청나서 오스트리아에서 같은 이름으로 익숙한 그 강에 비해, 반대편 하안에서도 여전히 한참 떨어진 저 멀리 배경에 하나의 추가구역이 뻗어있는데, 그것이 이 ‘두나브 Dunav’ 강을 제대로 된 ‘대하 Strom’로 만들어”(ERF 89) 주고 있다. 북서방향으로 사바 강과 도나우 강을 끼고, 남쪽으로 왼편에는 드리나 강을 오른편에는 모라바 강을 품은 채, 디나르 알프스와 발칸산맥을 마주 하고, 북쪽으로 넓게 펼쳐진 판노니아 평원 한 편에 자리 잡은 베오그라드와 세르비아, 화자에게 “이 강의 세계는 아마도 가라앉은, 가라앉고 있는 오래된 습지 세계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17세기 네델란드 그림들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세계의 풍경이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명처럼 등장한 바로 그런 원시세계였다.”²⁰⁾

늦어도 이 지점에서 독자는 이 여행이, 이 여행에서 만나는 장소와 공간들이 화자에게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동화와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특유의 주관적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화자가 여행 중 만나는 세르비아인들 대부분이 소박하고 품위 있으며 이상적인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비로소 설명이 된다. 베오그라드의 폐허가 된 칼레메그단 요새에서 만난 신분 있는 세르비아인들은 화자가 보기에 “유럽적이지도 그렇다고 분명 동방적이지도 않았는데” “그 표정들은 분노에 가깝지만 어떤 존재감, 또는 어떤 절제를 풍겼다”(ERF 86). 그리고 그들이 겪는 상실감은 사실 속은 사람들의 느낌일 거라고 추측한다(ERF 87). 친구인 출라트코 부모님 농가를 방문하기 위해, 동쪽 루마니아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포로딘을 찾은 화자는 친구의 가족이 사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unwillkürlich”(ERF 101) 루마니아어로 전환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서도 그

20) Diese Flußwelt war vielleicht eine versunkene, versinkende, eine modrige, alte, aber sie stellte zugleich eine Weltlandschaft dar, wie sie auf den niederländischen Gemälden aus dem 17. Jahrhundert mir so nie vorgekommen ist: eine Urwelt, welche als eine noch unbekannte Zivilisation erschien, [...](ERF 90 이하)

들이 “당연히 natürlich”(ERF 102) 세르비아인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다. 말하자면 포로딘은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의 한 이상적 예인 것이다.

그에 반해 화자가 유일하게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세르비아인은 드리나 강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 날에 크라구예바츠에서 만난 비판적 지식인과 작가들이었다. “상황에 대해서, 보스니아 전쟁에 대해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역할에 대해, 그 중에서 보스니아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의 역할에 대한 원탁회의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완연했던”(ERF 109) 저녁이었다. 대화가 점점 진행되는 중에, 얼마나 권력자들이 현재 세르비아 인민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지, 또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가한 억압에 대해, 또 크라이나 공화국을 승인한 경솔함에 대해 한 남자가 격하게 비난을 하자(ERF 110), 화자는 “다른 쪽에 있는 전쟁광들은 그냥 놓아둔 채로”(ERF 111) 고함치는 “윗분들에 대한 그의 저주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ERF 112). 이 고백을 그 자체로 한트케의 정치적 입장으로 간주한다면, 여러 사람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하지만 작가의 유고슬라비아라는 희망과 동경이 투영된 이 세르비아여행의 장소와 풍경은 전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동화적 세계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세계의 희미한 아우라는 여행기 2부에서 데베로브르도라는 큰 산줄기를 넘어 찾아간 드리나 강, 그 강을 사이로 보스니아를 마주한 국경마을 바이나 바슈타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평원이 지배했던 1부와 달리 여행기 2부는 수천 미터 고도의 거대한 야생의 산지풍경으로 시작한다. 점점 설경으로 변하는 오르막길에 차바퀴는 미끄러지고, 불빛은 더욱 드물어지며, 일부 구간은 비포장에 분화구처럼 커다란 구멍들이 패였고, 눈보라까지 더해졌지만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했다”(ERF 117). 마치 보물이나 이상향을 찾아 나선 진정한 모험여행처럼 드리나 강으로의 여행길에 시련은 충분히 크고 강렬하며 그것은 극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이 위협적인 자연에 마주한 화자-주인공은 번개가 번쩍이는 눈보라야말로 눈 폭풍부는 완벽한 발간 산맥의 밤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해본다(ERF 118). 그런 압도적 풍경에서 불안은 패닉으로 또는 그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으리라 예감한다. 낭만주의 이래로 거대한 야생의 거친 산악풍경은 숭고미의 대표적 소재였음을 상기에 보면, 이 장면의 예술사적 토포스는 분명해진다.

눈보라치는 위협적인 산악을 넘자 드디어 길은 다시 아래를 향하고, 저 멀리 계곡 아래를 향해 내뿜는 운전사의 외침은 구원의 정언명령처럼 들린다. “저기

아래가 드리나 강입니다. 저기 아래가 분명 바이나 바슈타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편이 바로 보스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낮 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숙함이 있는”(ERF 119) 이 조용한 유고의 지방도시에서 세르비아 친구 차르크 Žarko의 전부인과 딸이 사는 집에 화자와 두 명의 세르비아 친구 일행이 도착했을 때, 현관의 종소리는 갑자기 화자의 내밀한 기억을 소환한다. “30년 훨씬 전에 크로아티아 깊숙이 어디선가 여자 친구의 집 문 앞에 도착했던”(ERF 119) 순간을. 이 가벼운 안도감 속에서 열리는 기억의 공간에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는 묘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조우를 한다.

끝없이 눈 내리는 바이나 바슈타에서의 이 첫날 저녁에 차르크의 전처인 올가는 보스니아 전쟁과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해 증언한다. 사실 그녀는 “1 킬로미터 떨어진 전쟁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고” 소문은 무성했으나 “드리나 강 하류로 떼지어 떠내려 온다는 시체들”(ERF 120)을 직접 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만 “전쟁 전에는 여름이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쪽 강변에 가득했던 수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고”, “유람선도 없어졌다고” 했다. “딸과 함께 배를 타고 보스니아를 가로질러 크로아티아 아드리아 해의 스플리트나 두브로브니크로 더 이상 가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보스니아의 장소, 비셰그라드 Višegrad(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 강의 다리』의 무대이다) 또는 더 가까운 스레브레니차의 무슬림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음 쓰리지만 포기했다”(ERF 120 이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어디도 더 이상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세르비아인도, 크로아티아인도, 헝가리인도, 독일인도 될 수 없다는”, 자신은 “점점 더 유고인이 된다는”(ERF 128) 지역 사서의 고백은 올가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민족성과 상관없이 누려왔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공존의 삶, 이제 사라진 통합된 유고의 이상적 세계를 송환한다.

한편 이곳 드리나 강가 바이나 바슈타에서 이들 발칸민족들을 구분하고, 분쟁을 의심하고, 경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부인들인 서구의 저널리스트들(ERF 122) 그리고 서유럽으로 이주하여 오랜만에 귀향한 차르크이다(ERF 124). 드리나강 다리 저편 보스니아 초소 경비병이 “쏘는 눈길”로 다리를 건너 다가가는 화자 일행을 막아서지만,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또 접근할 수도 없는 슬픔 같은 것”이 아닐까 화자는 자문한다. “신만이 병사에게서 그 슬픔을 거둘 수 있을 터인데”(ERF 126), 화자의 “두 눈에 검고 텅 빈 드리나 강은 바로

그런 신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비록 아무 힘이 없는 신이긴 하지만. (...) in (meinen) Augen floß die dunkle leere Drina als solch ein Gott vorbei, wenn auch als ein völlig machtloser”(ERF 126). 한트케의 세르비아 여행기에서 자연의 미학, 특히 경계와 다리와 강의 시학에 주목한 알렉산더 호놀트는 이 부분을 클라이맥스 또는 안티클라이맥스의 극한점이라고 평가한다. 화자가 제목의 4개의 강들 중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부여한 드리나 강은 앞의 강들과 달리 보스니아와의 경계, 분리와 증오,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얼룩진 슬픔의 강이다. 하지만 1부와 2부의 풍경의 대비를 통해, 또 스토리 전개상 드리나 강은 희망과 구원의 수렴점이 된다. 화자는 평범한 현지인들의 다양한 기억 속에서 드리나 강을 민족경계를 뛰어넘었던 평화와 공존의 강으로 환기시킨다. 그래서 호놀트는 앞서 서술한 드리나 강의 다리 장면을 이보 안드리치의 유명한 소설처럼 또 하나의 신화의 탄생이라고 까지 주장한다. 비록 그 신화가 “검은 현현 eine(r) schwarze(n) Epiphanie”(Honold 2010, 217)이지만.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티토 게릴라군의 간호사였던 올가 어머니는 사회주의 유고의 이상을 여전히 믿는다. 그녀는 현재 전쟁에서 잇속을 차린 사람들을 증오하며 이 전쟁의 패자는 “혈뱀은 무일푼의 인민 dem frierenden Habenichtsvolk”(ERF 130)이라고 주장한다. 분열과 파괴의 시대, 증오와 대결의 시대에 고통 받는 이 민중들을 통합하고 치유할 희망을 화자는 현실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힘들다. 발칸의 대지를 도도히 흐르며 인간들에게 그들이 어떤 민족에 속했을지라도 삶의 기회를 주었던 발칸의 강들, 그들을 다시 품어주고 연결해주었던 발칸의 강들과 평야와 산들. 세르비아 여행기의 화자는 이 역사적 자연에 대한 미학적 성찰을 통해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발칸세계를 소환하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의 비전을 찾지 못한다.

IV. 나가는 말

유고 전쟁과 전범재판이 종결되고 십 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작가와 여론 양측 모두에서 논쟁의 열기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한트케의 발칸 텍스트를 메타정치학적으로 또는 문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Anne 2007;

Hafner 2008; Honold 2010; Miguoué 2012). 국내에서도 한트케의 발칸문학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트케를 연구해온 윤용호(2002), 그리고 박광자(2004)와 서요성(2005)이 국내에서 한트케 발칸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문을 열었다. 기존의 국내연구는 “사실 이상의 것, 시적인 것”, “이상적인 세계, 유토 피아”(박광자 2004, 258)를 그리려는 그의 문학적 진실성을 강조하거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전쟁”(서요성 2005, 84)에 대한 지성인 한트케의 비판 의식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의 문학적 또는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트케 발칸문학 연구에 두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1990년대 유럽의 지정학적 대변동의 소용돌이에서 그의 정치적 발언이 대중매체의 소통구조 안에서 결국 세르비아의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에 휩쓸려버렸음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이고 통합된 거대한 발칸 슬라브 세계라는 작가의 상상력에 내재된 탈민족국가적 공동체의 비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서유럽의 유고 해체전쟁 참전을 정당화했던 민족국가주권 이념은 냉전 이후 동유럽 및 발칸의 국가들이 자유와 인권을 담보하는 민주적 정치체로 발전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못지않게 포퓰리즘 민족주의와 배타적 영토의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정치학자들의 통찰이다. 동유럽과 발칸은 제국의 역사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민족의 혼재된 향토이자 다민족, 다문화 생활공간으로서의 특징이 유럽 그 어느 곳보다 뚜렷한 지역이다. 한트케의 세르비아 여행기가 그려내는 광역의 자연지리와 그에 토대를 둔 역사적 인류학적 발칸세계의 표상은 서구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끄는 통합된 유럽 체제의 질서 역시 정치경제 권력의 중심과 주변이 구분되는 위계적 세계질서임을 통찰하게 만든다. 이 점에서 역사적, 신화적으로 통합된 평화로운 발칸세계의 공동체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영토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논문이 제시하려는 두 번째 새로운 관점은 한트케의 세르비아 여행기가 그 고유한 공간시학을 통해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세르비아 여행기의 정치성은 직접적인 정치언어비평을 수행하는 전반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치언어비평이 철저하게 미학적이고 주관적 체험을 기록하는 후반부와 상호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유하게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도입부에서 전쟁저널리즘의 직접적인 선악판단과 그러한 연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화자는 본격적인 여행기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선악판단에서 완전히 거리를 취한다. 그는 독자의 정치적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디

어를 지배하는 과장된 정치적 언어에 거리를 취하면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발칸으로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지각여행(Federmaier 2012, 381)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르비아의 강들과 길, 들판과 산, 경계와 다리들을 따라, 그리고 사이사이 작은 도시와 마을, 인간들을 만나면서 일인칭 화자의 미시적이고 미학적인 체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서사의 궤적에 동승한 독자는 어느덧 역사적, 신화적으로 통합된 인류학적 발칸세계라는 광대한 지리학적 상상력에 함께 빠져들게 된다. 이 지리학적 상상력에 어떤 거시적 정치적 비전이 잠재되어 있는지는 앞서 II장의 서술을 통해 자세히 탐색하였다.

2012년 70세 생일을 맞은 한트케는 문학은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일인칭 탐험”(Timm 2012)이라고 규정한다. 사회와 상식의 기대지평에 기대는 문학은 그에게 늘 문학이 아니었다. 사실주의 참여문학에 대한 ‘묘사불능 Beschreibungsimpotenz’이라는 그의 신랄한 비판은 현실을 언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현실을 발견한다는 치열한 모더니즘 언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68 이후 저항적 독일문학계의 스타이면서 동시에 국외자의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1970년대 이르러 가족사에서 출발해 슬로베니아와 유고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변방과 주변적 공간, 사이공간에 대한 그의 지속적 관심이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언어혁명가였던 한트케가 그 공격의 칼날을 현실정치로 향했을 때, 당연히 그의 발언은 문학이라는 부분체계를 훨씬 넘어서는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한트케의 세르비아 여행기는 분명 벤야민의 의미에서 미학의 정치화가 아니다. 하지만 발칸으로 떠난 이 미시적 지각여행은 민족국가의 배타적 영토성을 넘어서는 인간적 삶의 지평에 대한 거시적 감수성을 되찾으려는 여행이었다. 그래서 이 혼종의 텍스트는 벤야민이 말한 정치의 미학화화도 거리가 멀다.

참고문헌

1차 문헌

Handke, Peter(1990): Aber ich lebe nur von den Zwischenräumen. Ein Gespräch, geführt von Herbert Gamper. Frankfurt a. M.

Handke, Peter(1991): Abschied des Träumers vom Neunten Land. In: Handke, Peter(2015):

www.kci.go.kr

Abschied des Träumers. Winterliche Reise. Sommerlicher Nachtrag. Frankfurt a. M., 7-32.

Handke, Peter(1996): Eine winterliche Reise zu den Flüssen Donau, Save, Morawa und Drina oder Gerechtigkeit für Serbien, In: Handke, Peter(2015): Abschied des Träumers. Winterliche Reise. Sommerlicher Nachtrag. Frankfurt a. M., 33-161.

Handke, Peter(1996): Sommerlicher Nachtrag zu einer winterlichen Reise. In: Handke, Peter(2015): Abschied des Träumers. Winterliche Reise. Sommerlicher Nachtrag. Frankfurt a. M., 163-250.

Handke, Peter(2000): Unter Tränen fragend. Nachträgliche Aufzeichnungen von zwei Jugoslawien-Durchquerungen im Krieg. Frankfurt a. M.

Handke, Peter(2009): Die Kuckucke von Velika Hoča. Frankfurt a. M.

2차 문헌

김철민(2007): 동유럽의 민족분쟁. 보스니아·코소보·마케도니아. 살림출판.

마조워, 마크(2006): 발칸의 역사(이순호 역). 을유문화사.

바우어, 오토(2006): 민족문제와 사회민주주의(김정로 역). 백산서당.

바타코비치, 두산 외(2001): 세르비아역사(정근재 역). 도서출판 선인.

박광자(2004): 현실과 문학, 한트케의 유고슬라비아. 독일언어문학 25, 247-263.

서요성(2005): 페터 한트케, 코소보 전쟁의 어느 지성인. 독일어문학 29, 67-88.

오승은(2018): 동유럽 근현대사. 제국 지배에서 민족국가로. 책과 함께.

윤용호(1995): 페터 한트케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윤용호(2002): 한트케의 소설 『반복』에 나타난 슬로베니아 상(想).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84, 259-278.

해먼드, 필립(2007): 전쟁과 인도주의: 발칸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실린 곳: 앨런, 스텐우트/젤리저. 바비(편지)(2007): 전쟁보도. 전시의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33-253.

Assmann, Aleida(2006):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Brock, Peter(1993): Meutenjournalismus. In: Bittermann, Klaus(Hrsg.)(2013): Serbien muß sterben. Wahrheit und Lüge im jugoslawischen Bürgerkrieg. 6. Auf., 15-36.

Deichmann, Thomas(2017(1996)): Noch einmal für Jugoslawien. 3. Auf. Frankfurt a. M.

Federmaier, Leopold(2012): Alptraum und Wunschautobiographie. Neue Studien zu Peter Handke verdeutlichen die Konturen seines Werks. In: Weimarer Beiträge 3. Wien, 372-393.

Gritsch, Kurt(2009): Peter Handke und „Gerechtigkeit für Serbien“. Eine

www.kci.go.kr

- Rezeptionsgeschichte. Innsbruck; Wien; Bozen.
- Hafner, Peter(2008): *Unterwegs ins Neunte Land*. Wien.
- Herwig, Malte(2012): *Meister der Dämmerung*. Peter Handke. Eine Biographie. München.
- Honold, Alexander(2010): *Grenze, Brücke, Fluss*. Peter Handkes Erkundung einer
Kriegslandschaft. In: Geulen, Eva; Kraft, Stephan(Hrsg.)(2010):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Sonderheft zum Band 129. *Grenzen im Raum – Grenzen in der
Literatur*, 201-219.
- Irmer, Tomas(2014): *Am Rande der Erschöpfung*. In: *Theater heute* 11. Berlin, 67-68.
- Jošilo, Marko(2014): *ARD-Kriegsreporter packt aus: Wie Medien Krieg machen*. Zeiningen.
- Lindner, Anne(2007): *Jugoslawien und das Problem der strukturellen Gewalt*. Wiesbaden.
- Miguoué, Jean Bertrand(2012): *Peter Handke und das zerfallende Jugoslawien*. Innsbruck.
- Schmitt, Oliver Jens(2008): *Kosovo. Kurze Geschichte einer zentralbalkanischen
Landschaft*. Köln; Weimar; Wien.
- Timm, Ulrike(2012): ‘Ein kanonischer Autor unserer Epoche’, Die Literaturkritikerin Sigrid
Löffler würdigt Peter Handke zum 70. Geburtstag. In: <http://www.deutschlandfunkkultur.de>.
- Todorova, Maria(1999): *Die Erfindung des Balkans. Europas bequemes Vorurteil*. Aus dem
Engl. übers. von Uli Twelker. Darmstadt.

Zusammenfassung

Die politische Herausforderung und der poetische Sinn der Balkanliteratur von Peter Handke

– Eine Interpretation auf Grundlage seines Reiseberichts

*Eine winterliche Reise zu den Flüssen Donau, Save, Morawa und Drina
oder Gerechtigkeit für Serbien*

TAK Sun-Mi (Hanyang Univ.)

Mit der Veröffentlichung seines Reiseberichts in der *Süddeutschen Zeitung* im Januar 1996 ist Peter Handke zur Zielscheibe der politisch-öffentlichen Debatte über den aktuellen Krieg auf dem Balkan geworden und seitdem über Jahrzehnte hinaus durch die westlichen

www.kci.go.kr

Medien als Vertreter der serbischen Sache verfeimt worden. Seine Balkantexte aus den 1990er Jahren stellen jedoch wie kein anderer Text zu dieser Zeit eine genuin literarische Gestaltung der kriegerischen Zeitgeschichte dar. Peter Handke hält das große Jugoslawien für einen idealen Hort für die südslawischen Völker auf dem Balkan, die sich mit ihrem friedlichen Zusammentun nach dem Zerfall der österreichischen und ungarischen Doppelmonarchie und durch ihren gemeinsamen Widerstand gegen das NS-Regime während des 2. Weltkriegs immer mehr angenähert haben. Er bedauert also den durch einzelne Völker erhobenen Anspruch nach einem eigenen Staat und kritisiert die Bemühung der Slowenen und Kroaten, sich vom serbischen Balkan abzugrenzen, als einen Selbstwiderspruch. Aber mit einer solcher Einstellung zum Jugokrieg steht Handke gerade quer zu dem politischen Konsensus der westlichen Welt und stellt ihr Selbstverständnis über den durch die NATO geführten, gerechten Krieg in Frage. Die Medien nahmen den Schriftsteller aufs Korn anstatt den Krieg selbst. Die dritte poetische Wirklichkeit, die er über die ästhetisch-subjektive Wahrnehmung der serbischen Flusslandschaft ins Leben ruft, widersteht allerdings dem nationalstaatlich-ideologisch definierten Dualismus vom Guten und Bösen. In ihr wird das friedliche Miteinander der Völker imaginiert und geträumt. Sein Reisebericht lässt sich insofern als eine Geopoetik verstehen, als dass er versucht, den sich um ihre exklusive nationale Souveränität streitenden Völkern eine alternative Vorstellung über den Balkanraum in Aussicht zu stellen.

Schlüsselbegriffe: Peter Handke, der Jugoslawienkrieg, der Balkan, Serbien, Drina

필자 이메일 주소: smtak@hanyang.ac.kr

논문투고일: 2018.11.21 | 논문심사일: 2018.12.03 | 게재확정일: 2018.12.13

www.kci.go.kr